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2호 【루계 제2131호】

주체100(2011). 8. 6 토요일 음력 7. 7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발표 20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발표 20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1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당의 선군령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으며 온 겨레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발표 2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0(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성원들을 만나시고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대단결의 근본원칙과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 해외동포들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문제와 조국통일문제를 과학적으로 명시한 민족대단결총서이며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목표와 방향을 밝혀준 통일대강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실현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온 겨레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와 그 실현방도들을 보다 뚜렷이 밝힌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고 말하였다.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마련해주시고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을 만나시여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그들이 통일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이도록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으로 북남관계가 좌절되고 대결과 전쟁위험이 격화되고있는 오늘 선군의 위력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나라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선군혁명령도로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앞당겨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 민족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중대하고도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온 겨레는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민족대단합의 위력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에 의하여 북남관계가 파탄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난국이 조성된 오늘의 정세는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자주통일의 기치이고 민족번영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철저히 리행하며 외세와 결탁하여 벌리는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남조선인민들이 온갖 불행과 전쟁의 근원인 미군을 몰아내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며 동족대결에 광분하고있는 역적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민족대단합의 경륜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조선은 하나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진행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가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에로 부른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 가내작업반, 리용생산반들과 가내편의봉사원들이 만든 일용품, 피복, 초물제품, 농토산물 등 1만여종에 12만 2 000여점이 출품되였다.

3일에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인민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소비품생산을 군중적운동으로 밀고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최근에도 이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지 근로자들은 대중소비품을 비롯한 갖가지 상품들을 다양하고 질좋게 만들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려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평양시내 공장, 기업소, 직매점, 가내작업반관리소들에서 부산물들을 모조리 회수, 선별하여 만든 일용잡화, 민예품 등은 제품들을 인기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 생산자들의 헌신적노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함경남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남포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가내작업반, 리용생산반들을 늘이고 지방원료를 리용하여 경쟁적으로 생산한 맵시있고 쓰기 편리한 제품들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느끼였으며 군중적운동으로 소비품생산을 더욱 늘일 의지를 가다듬었다.

평양기초식품공장 현대화공사 적극 추진

평양기초식품공장이 훌륭히 개건되고있다.

평양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생산공정을 최첨단수준에서 새롭게 꾸려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현대적으로 건설되는 기름정제, 비타민E생산공정, 종합적인 제품포장공정 등에는 최신설비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모든 생산건물들과 원료보관시설, 편의봉사기지도 문화적으로 꾸려지게 된다.

평양식료련합기업소와 평양기초식품공장 일군들, 로동자, 건설자들은 희천속도창조자들의 투쟁기풍으로 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고있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설비제작과 설치를 위한 설계를 원만히 보장한데 이어 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있다.

새로 일떠서는 건물들의 기초공사가 끝나고 지금 골조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이미있던 10여개의 현장들에서는 모든 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와 함께 외벽타일붙이기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건설자들은 평양시민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기초식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뜻을 하루빨리 실현할 열의를 안고 개건공사를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평양시의 원림록화 및 꾸리기형성안작성을 다그치고있다.
—국가건설감독성 건설설계정보쎈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3돐에 즈음하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성대히 개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3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1일 저녁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공연장소인 5월1일경기장은 태양민족의 자랑스러운 국보이며 인류문화예술의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기 위하여 온 관람자들로 흥성이였다.

창조집단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새로 창작형상함으로써 공연의 사상예술성을 한층 높이였다.

김기남,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강능수부총리,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과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안동춘문화상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고있는 환경속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진행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된 모습과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내외에 과시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장내에 《그이의 리상》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를 비롯한 글발들이 배경대에 련이어 새겨지고 환희의 꽃물결, 춤바다가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천만군민의 투쟁모습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거대한 립체적공간에서 현대적인 음향, 조명설비와 전광장치들, 아름다운 률동과 기백있는 체조, 변화무쌍한 배경대 등으로 황홀한 예술의 무아경을 펼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력과 주체문화예술의 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뉴욕에서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대표단이 뉴욕에서 7월 28일과 29일 스티븐 바즈워스 미합중국 대조선정책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표단과 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는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정세안정, 6자회담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속에서 심도있게 론의되였다.

쌍방은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것이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였으며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을 속히 재개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9.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리행해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일관하다.

본사기자

정리해고 철회하라, 현 《정권》 끝장내자

남조선 각계층 군중 1만 5 000여명 항의투쟁 전개

남조선의 각계층 군중 1만 5 000여명이 7월 31일 부산시 영도에서 한진중공업회사의 정리해고조치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먼저 집회가 있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업주측의 살인적인 정리해고에 분노한 각지의 각계각층 군중이 자본가들만을 비호하는 현 《정권》을 끝장낼 의지를 안고 한자리에 모였다고 언명하였다.

한진중공업사태는 단지 이 업체에 한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련대련합하여 정리해고철회를 위해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해고된 로동자들을 복귀시키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업주를 구속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한진중공업회사의 한 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이미 쌍룡자동차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정리해고는 남조선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땀흘려 일하는 로동자들이 생존을 위협당하는 비극이 더이상 계속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고당한 로동자들이 일터로 되돌아가는 그날까지, 해고와 비정규직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올 때까지 투쟁은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날 파쑈경찰은 영도조선소로 통하는 주요도로들을 차단하고 부산시내 곳곳에 폭압무력을 배치하여 각계층의 투쟁을 막아나섰다.

격분한 투쟁참가자들은 부산지방경찰청앞에 모여 업주들을 비호하고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가로막는 경찰의 폭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적전통을 귀중히 여기시여

반만년세월 하나의 피줄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의 민족적전통은 민족성에 바탕을 두고있다.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인 민족성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이고 생명선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적전통을 옳게 계승하고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리고 계승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주체성과 함께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민족적전통이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 넋이 깃든 민속명절과 민속놀이, 례의범절을 비롯한 조상대대의 미풍량속에도 민족적전통이 슴배여있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애는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깊이 간직하고 일상생활에서 민족적인것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데로부터 생긴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미풍량속을 고수하고 적극 살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설명절과 정월대보름, 한가위와 같은 민속명절을 더 뜻깊게 쇰으로써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생활전통을 잘 살려나가도록 거듭 강조하시였고 아이들이 즐겨노는 유희오락의 가지수까지 헤아리시며 연띄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줄넘기, 메뚜기치기 같은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르신 장군님이시다.

민족적전통은 민족료리나 민족의상을 비롯한 사람들이 입고 먹고 쓰고사는 의식주생활문화에 그대로 비낀다.

대홍단읍에 건설된 국수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우리 나라의 풍토환경과 생활조건, 자기의 체질과 구미에 맞는 고유한 음식을 창조하고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 속담에 《한가지 무우를 가지고 백가지 반찬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지혜롭고 총명한 우리 민족이 다양하게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한 민족료리는 밥, 떡, 국수 등 주식물로부터 김치를 비롯한 부식물 그리고 음료, 단음식에 이르기까지 1만여종을 헤아린다.

장군님께서는 민족음식에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 조선사람의 구미와 기호를 비롯한 민족적특성이 진하게 반영되여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김치와 떡, 국수, 신선로료리, 엿을 비롯하여 인민들이 좋아하는 고유한 민족음식이 많다고 하시면서 찰떡을 쳐먹는것이나 분틀우에 올라앉아 국수를 눌러먹는것도 우리 나라의 독특한 풍습이며 동지날에 팥죽을 쑤어먹는것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풍습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식생활문화에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다.

오늘도 고유한 민족음식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평양랭면으로부터 명태매운탕을 비롯한 지방토배기음식과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막걸리와 같은 일상음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민족음식마다에 그이의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산뜻하면서도 우아한 치마저고리와 같은 우리 인민의 옷차림문화에도 조선옷의 전통을 살려나가도록 하시려는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공화국을 방문한 중국국가지적소유권총국의 한 사람인 카오 진얀은 평양의 거리들에서 치마저고리를 입은 조선녀성들의 모습은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민족의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려는 조선인민의 열의가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자기 심정을 토로했다.

집 한채 지어도, 제품 하나 만들어도 민족의 풍습과 기호, 미감에 맞게 그 전통을 살리고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이 장군님의 의도이고 뜻이다.

언제인가 량강땅의 삼지연읍지구를 현지지도하시며 어느 한 국수집을 돌아보실 때 그이께서는 조선식기와집이 보기 좋다고, 청기와를 이어놓으니 더 멋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민족적인것을 장려해야 하며 다른 지방들에서도 조선식기와집을 많이 짓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언제인가 신의주의 어느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서 만든 초물모자를 손수 써보시며 초물제작술의 전통을 살려 맵시있고 실용가치가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든 생산자들을 높이 치하하시고 더 많이, 더 좋게 만들도록 고무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령도의 손길은 고려의학의 발전과 고려약생산에 이르기까지, 계몽기가요나 봉산탈춤과 같은 고유한 노래선률, 춤가락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공화국을 방문했던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찾았을 때 그곳 로동자들로부터 삶은 풋강냉이를 대접받고 구수한 토장을 끓일수 있는 곱돌장사귀를 기념으로 받고나서 예가 바로 내 겨레가 사는 내 땅이라고 민족의 향취넘치는 현실에 감동을 금치 못했었다.

절세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자랑스러운 전통이 꿋꿋이 이어지고 빛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이 땅우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숨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시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겨레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면면히 이어지고있다.

손송죽

력사적인 로씨야 방문의 나날에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였다. 20여일간에 걸쳐 5만여리의 대장정을 이으신 그이의 로씨야방문은 세계정치외교사에 일찌기 없었던 회세의 위인, 걸출한 정치가의 력사적인 대외활동이였다.

세계를 진감케 한 그 나날에 있은 일화들가운데 일부를 전한다.

《조선의 뿌슈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뿌슈낀명칭 옴스크국립과학도서관을 찾으셨을 때였다. 도서관에서는 《조선—맑은 아침의 나라》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열리고있었는데 전시회장에는 1930년대에 옴스크고리끼사범대학에서 공부한 조선의 유명한 시인인 조기천의 성적증도 있었다.

장군님께서 그 전시품앞에 이르시자 해설원은 조기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를 《조선의 마야꼽스끼》라고 했다.

장군님께서는 즉석에서 조기천은 《조선의 뿌슈낀》이라고 해설원의 설명과는 다르게 평가를 내리시였다.

마야꼽스끼와 뿌슈낀은 다 로씨야의 이름있는 시인들이다. 마야꼽스끼는 쏘베트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알려져있고 뿌슈낀은 로씨야사실주의적민족문학의 개척자로서 로씨야문학의 할아버지로, 세계적인 대문호로 불리우고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낳은 재능있는 시인 조기천을 뿌슈낀과 같은 지위에 있는 력사적인 인물로 추억하시는것이였다.

도서관사람들은 민족성원들의 재능과 공적을 정확히 평가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하시는 그이의 열렬한 민족애에 탄복을 금치 못해했다.

길들여진 날씨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날씨를 길들이신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도착하시기 전까지 역구내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었다. 그런데 렬차가 역구내에 들어서자 하싼의 하늘이 갑자기 맑게 개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향도성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듯 7월의 밝은 태양이 찬연한 빛을 뿌리며 렬차를 맞이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이런 자연현상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였다.

왜냐하면 6일이 지나 노보씨비르스크에서도 두번째로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기때문이다. 렬차가 도착하기 10분전까지 도시상공에서는 우뢰가 무섭게 울고 번개가 쳤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듯 무더기비가 쏟아졌다.

그러나 향도의 태양이 타신 렬차가 역에 들어서자 자연의 변덕은 갑자기 멎었다. 아마 자연자체도 씨비리땅에 오신 친애하는분을 환영하는것 같았다.

옴스크에서도 신기한 현상은 계속되였는데 그분께서 도착하시자 사람들을 괴롭히던 비가 갑자기 멎고 하늘이 맑게 개이였으며 태양이 찬란히 빛났다.

그 지역 사람들은 한주일, 열흘씩 비가 내리던 광활한 씨비리땅에 해빛을 안고오신 장군님을 천기를 다스리는 전설적위인으로 경모했다.

본사기자

위인의 명언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은 뗄수 없이 결합되여있으며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길에 개인의 진정한 삶이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이 담고있는 의미이다.

민족은 피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사람들은 오랜 력사적기간 나라와 민족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왔다. 사회적인간은 계급과 계층의 성원인 동시에 민족의 성원이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참답게 살아갈수 없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

자기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져야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에 기여할수 있고 자기 운명도 개척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운명이자 민족성원들의 운명이며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 운명을 참답게 개척하려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으로, 행복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해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오늘 공화국에서 만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시대의 기념비적걸작으로 불리우며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고있는것도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는 심오한 삶의 진리를 담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북과 남의 제도상 차이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중요하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계층에 속해있건, 어디에서 살건 모두가 자기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는 해외동포들의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뗄수 없이 하나로 련결되여있다고 하시며 열렬한 조국애를 가지고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특색있는 기여를 하며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민족성원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성이 무시당하는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하시며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이고 의지이며 지향인 조국통일을 위해 북남공동선언을 통일의 대강으로 높이 들고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기어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다.

애국애족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여야 한다.

온 겨레는 명언의 뜻을 깊이 새겨안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조국통일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남겨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조국의 미래가 비낀 《첫의정》

공화국에서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위한 교육에 많이 리용되는 연필을 비롯한 필기도구들에서 자주 보게 되는것은 《첫의정》이라는 자호이다. 자호를 볼 때면 해방직후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의 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를 상정시키고 토의하도록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뜨거운 은정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그이께서는 연필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후대들을 훌륭한 나라의 인재로 육성하며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는 소원을 풀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문제라고 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연필을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주체35(1946)년 6월에는 우리 나라에 첫 연필공장을 세우도록 하시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연필생산을 계속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는 제일 선참으로 학교를 세워주시였고 연필공장을 꾸려주시였다. 온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대적인 연필공장을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일데 대하여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주석이시다.

주석의 높은 뜻,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어가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지난 5월 평양수지연필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에서는 《첫의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수지연필이며 마지크, 원주필을 비롯한 여러가지 필기도구들이 생산되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나무연필로부터 수지연필생산으로 발전한 우리 나라 연필생산의 력사를 감회깊이 더듬으시며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의 조립과 포장, 출하 등 첨단수준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고 다종다양한 필기도구들의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을 일일이 료해하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질좋은 수지연필과 색연필, 원주필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날로 늘어나는 필기도구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불타는 애국심과 창의창발성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각종 수지연필들과 원주필, 마지크들을 질좋게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생산자들을 고무하시였다.

절세위인들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과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의 연필공업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연필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여러가지 필기도구들이 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공급되고있다.

《첫의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필기도구를 리용하는 학생들, 근로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조국의 번영을 위해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는다.

본사기자 최석현

선군은 민족의 존엄

우리 인민이 오늘 자기의 존엄과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자주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있는것은 선군의 덕이다.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는것이 선군이다. 국력이 약하면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망국민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은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피에 절은 과거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이시는 민족자주위업의 력사는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며 전진해온 선군의 력사이다. 주석께서는 선군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셨으며 미제침략세력을 타승하고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선군승리의 력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항일대전의 나날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백두의 기상과 슬기를 한몸에 안고 성장하시였고 반미성전의 나날에는 최고사령부작전대결에서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장군님께서는 수십성상 선군의 기치높이 자위적무장력을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선군에 의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조선반도는 이미 몇번이고 전쟁터로 화했을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여지없이 깨여졌을것이다. 선군의 기치가 있기에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횡포무도한 위협공갈, 특대형도발에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기상, 강한 배짱으로 맞받아나가고 국제무대에서 제 할말을 다하며 민족적자존심을 지켜가고있다.

선군은 국가경제력을 튼튼히 하여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일수 있게 해준다.

오늘 공화국인민이 강성국가건설의 마지막고지인 경제강국건설에 마음놓고 총력을 기울일수 있게 된것은 평화적환경과 안정을 담보하는 선군이 있기때문이다. 선군에 의해 국력강화를 위한 군사적담보가 마련되고 국방공업선행의 독창적인 경제건설전략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경제력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공화국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개발, 발사 등 다계단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것은 선군으로 다져진 국력의 결실이고 민족존엄의 과시이다.

민족의 존엄을 떨치는 선군에 대해 리용술 재우크라이나동포는 우리는 선군이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이라고 단언한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시는 한 조선반도에는 외세의 총알 한방 날아들지 못할것이라고 했다.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대학생모임》을 연 남조선의 동포들은 선군정치로 하여 우리 민족이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선군은 우리 민족을 부흥케 하는 21세기의 초강법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온 민족이 한결같이 신뢰하고 지지하며 옹호하는 선군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이고 운명이고 존엄이다.

리홍수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하시려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전병훈과 나눈 대담—

기자: 지난 8월 4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14돐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전병훈: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기어이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주체83(1994)년 10월 16일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수령님의 유훈이며 온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잘살도록 하시려는것이 수령님의 뜻이였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런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 통일친필비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건립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실 철석의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기자: 바로 그 다음해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여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주시지 않았는가.

전병훈: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심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로작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준 조국통일총서이다.

기자: 로작이 발표된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변들은 모두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시려는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본다.

전병훈: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그이의 대용단에 의하여 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96(2007)년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발표하도록 하신것은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운 력사적사변이였다.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시고 위대한 선군정치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6.15공동선언발표후 북남사이에 이룩된 경이적인 사변들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처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민족의 단합에 평화와 번영이 있다

오늘날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6.15시대와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의 함성이 드높이 울리던 이 땅에서 민족적화해의 분위기가 동족대결로 돌아선것은 현 남조선보수당국이 출현한 이후부터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민족단합의 대명제인 우리 민족끼리를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헐뜯고 말살하기 위해 광분하였다. 지난해에 남조선당국에 의해 조작되고 일어난 모략적이며 도발적인 사건들로 하여 북남관계는 더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빠져들게 되였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북침전쟁연습과 반공화국대결소동, 최근 공화국을 반대하여 남조선에서 발생한 특대형도발행위들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최악의 상태에 처하였다.

현실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민족의 대단합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 겨레에게는 민족대단합의 고귀한 전통도 있다.

해방후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의 분렬을 막고 민족앞에 드리운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소집되였던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는 민족의 리익을 위해 우리 겨레가 뭉치지 못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는것을 오늘도 웅변적으로 말하여주고있다.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서로 뜻과 힘을 모아 단결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찬란한 민족문화, 위력한 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될것이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권시옥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 촉구

남조선의 《한국진보련대》 상임고문이 기고문을 발표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의 즉시적인 리행을 당국에 촉구해나섰다.

그는 기고문에서 현 남조선집권자가 《대미의존, 〈한〉미공조, 남북대결》정책을 《민족자주, 남북공조, 화해협력》정책으로 즉각 전환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6.15와 10.4선언리행으로 전환하여야 국민모두가 살아남을수 있다고 기고문은 지적하였다.

기고문은 또한 《시간은 현 〈정부〉의 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리명박〈정권〉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이 〈정부〉를 세워준 죄값으로 우리가 돌이킬수 없는 불행을 맞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핵, 개방, 3 000》, 《5.24조치》를 비롯한 《남북단절 및 대결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공업지구사업활성화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올해의 8.15기념대회를 《민생복지, 자주통일을 책임질 진정한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온 겨레의 결의대회로 빛내일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요구하는 집회의 한 장면

통일언론말살을 노린 고의적인 책동

최근 남조선공안당국이 북과 남, 해외가 함께 만드는 6.15시대의 통일애국잡지 《민족 21》에 대한 탄압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얼마전 정보원은 《민족 21》 편집국장 정용일이 《재일공작원》에게 포섭되여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의 자택은 물론 《민족 21》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놀음을 벌리였다. 이에 앞서 《민족 21》 편집주간 안영민과 그의 아버지 안재구로인도 정보원에 의해 가택수색을 당하고 수차에 걸치는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민족 21》이 어째서 공안당국의 탄압대상으로 되는가 하는것이다.

6.15공동선언발표를 배경으로 2001년에 창간된 《민족 21》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의로운 활동을 해온 합법적인 언론단체이다.

지난 시기 《민족 21》은 북의 현실을 더 잘 알리고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데로부터 당국의 승인밑에 합법적으로 북에 대한 취재를 하였으며 총련의 《조선신보》와도 련계를 가지고 언론교류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창간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10년간 《민족 21》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온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운동에로 힘있게 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민족 21》의 이러한 언론활동은 《정부》승인아래 합법적으로 진행되였다. 《민족 21》성원들은 당국의 승인밑에 합법적으로 북이나 일본을 왕래하면서 해당 관계자들을 만나 언론교류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였으며 돌아와서는 그 정형에 대해 당국에 통고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누가 그랬다. 〈민족 21〉이 북 찬양잡지가 아니냐고. 그래서 말해주었다. 북을 비난하는것은 〈조, 중, 동〉 다 하니까 하나라도 좋은 말해야 한다.》며 《북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북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한피줄임을 인식하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데 그것을 〈민족 21〉이 해왔다.》고 적극 찬양하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합법적언론사인 《민족 21》을 탄압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반통일집단, 파쑈집단인 리명박《정부》만이 감행할수 있는 극도의 언론테로이고 통일언론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말살이다. 이전 《정권》시기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은 《민족 21》을 《친북좌파》로, 그들의 언론활동을 《리적행위》로 몰아붙이면서 각방으로 시비중상하였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민족 21》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이전 《정권》시기 지불되던 보조금마저 자르고 지난해부터 북과의 기사교류사업 또한 완전차단하였다.

그러고도 모자라 《민족 21》언론사 간부들에게 그 무슨 《간첩혐의》까지 씌우면서 탄압의 촉수를 뻗치고 있는것이야말로 통일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공안당국의 책동이 무모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것을 말해준다.

정보원이 《개인적인 문제》니 뭐니 하고 변명하지만 그것은 6.15의 산아인 《민족 21》언론사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남조선당국의 계획적인 책동으로서 한갖 기만에 불과하다.

지금 북과 남, 해외에 널리 알려진 《민족 21》에 대한 정보원의 탄압소동은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언론활동이 〈용공리적혐의〉를 뒤집어쓰는 현실과 없는 죄를 스스로 밝혀야 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참담하다.》고 하면서 반《정부》투쟁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통일언론에 대한 탄압소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윤현주

대결을 부추기는 《반통일공모전》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의 《흡수통일》기도가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다.

남조선 《련합뉴스》가 7월 29일 보도한데 의하면 통일부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통일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제1차 《통일동화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공모전의 주제가 《자유민주주의에 립각한 평화적통일의 긍정적미래상》이라는것이다. 여기에 통일부는 최고 500만원까지의 상금을 내걸고 청소년들을 유혹하고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자들만이 고안해낼수 있는 반통일적발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우리 겨레가 진정으로 바라는 통일은 민족의 대단결에 기초한 자주적평화통일이다.

겨레의 지향과 념원대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도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이루어지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이다.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든다면 불피코 충돌과 전쟁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출현한 직후부터 있지도 않을 그 누구의 《붕괴》를 꿈꾸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야망실현에 급급하였다.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남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었으며 지난해 연평도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불과 불이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였다. 보수집권세력이 력설하는 《통일세》, 《북인권법》타령도 이러한 책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흡수통일》야망은 실현불가능한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리며 강성국가를 지척에서 바라보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은 어떠한가.

돈이 없어 배움의 권리를 빼앗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원한이 초불이 되여 거리를 뒤덮고 당국의 정리해고로 수많은 로동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있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보수집권세력이 초래한 《등록금대란, 실업대란, 전세대란》 등으로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긴 남조선인민들은 보수《정권》에 철추를 내리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실용정부》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청소년들까지 동족대결에로 부추기는 허황한 놀음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본사기자 최명제

김선달을 찜쪄먹을 일

아래의 글은 남조선의 인터네트출판물 《민중의 소리》에 실린 글을 요약한것이다.

《옛날 누구나 함께 사용하는 평양의 대동강물을 김선달이라는 량반이 돈을 받고 팔아먹은 일화는 유명하지요. 그런데 대동강물은 눈앞에 보이기라도 하지. 보이지도 않는 대동강물을 돈을 받고 팔겠다는 김선달을 찜쪄먹을 일이 대명천지에 현대에서도 벌어지고있습니다. 이른바 〈통일세〉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남북간에 대화를 확대하고 평화를 보장해갈수 있는 통일정책을 내놓으라고 했더니만 느닷없이 〈통일세〉가 툭 튀여나왔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세금뜯어가기 위한 술책이라고 이구동성이지요. 극장도 안 지어졌는데 영화관람료부터 내라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국가재원〉은 부족하고 4대강에 쏟아부을 돈도 모자라고 결국 〈통일〉이라는 이름을 빌어 혈세를 뜯으려는것 아니냐는것입니다. 통일의 념원은 날아가고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국민들의 등골만 더 휘게 만드는 꼴입니다. 누구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극장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영화관람료부터 달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워낙 〈통일세〉라는 사안이 뜬금없기때문에 이런 비꼬는 이야기들이 줄을 서고있는 모양입니다. 맞든 틀리든 무슨 조그만 징조라도 있으면 모를가, 밑도 끝도 없이 북의 〈붕괴〉를 예측해서 〈통일세〉를 징수하겠다는것도 참 황당하지만 그우에 세금부터 생각하는 발상이 참 기가 막히네요.

지난번 베를린에서 돈봉투사건에 이어 이런 모습을 보자니 리명박〈정부〉의 관료들은 모든 사물을 볼 때 돈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시 아닐가, 그렇지 않고서야 통일이라는 민족의 념원과 대사를 놓고 어떻게 이런 발상부터 나오는지 리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사기자

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중지를 요구

남조선잡지 《민족 21》 발행인이 7월 29일 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정보원이 그 무슨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들씌워 《민족 21》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하고 조사놀음을 벌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앞에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공안당국의 부당한 탄압소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제 발등을 찍은 《〈제재〉도끼》

지난해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북에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서 그 무슨 《조치》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남짓이 지난 오늘 과연 이 《조치》는 어떤 《효력》을 발생하였는가. 지난 7월 19일 서울에서는 금강산관광, 개성공업지구 등 북남경제협력사업에 투자한 10여개 기업대표들이 모여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포함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이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것은 이 《조치》가 남조선의 북남경제협력관련기업들에 막대한 경제적피해만을 가져다주었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누구에 대한 《년간 3억US$정도의 벌금》이니 뭐니 하는 말로 이 《조치》가 그 무슨 《성과》라도 거두고있는듯이 떠들어댔다.

그러나 오늘날 남조선에 펼쳐진 현실은 이 《조치》라는것이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남조선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남경제교류가 중단되면서 그와 련관된 남조선의 기업들은 지금 《숨쉬기조차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빚더미우에 올라앉아 문을 닫거나 휴업상태에 있으며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업가까지 생기고있다.

전체 경제협력관련기업들이 1억 5 000만US$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는 속에 남조선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3월사이에 자체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페업한 관련기업은 최소한 16개라고 한다. 조사에 응한 154개의 기업중 19개 기업은 현재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여 다시 시작할수 없다고 대답했고 102개 기업은 일시 중단상태라고 했다.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한 170여개의 중소기업과 500여개의 려행업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북남경제협력은 민족의 화해와 공동의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며 북과 남에 다같이 리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다.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이 이 초보적인 리치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나니 결국은 제 발등찍는 도끼질을 계속 해대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기업가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린 심정을 도대체 〈정부〉가 아는지 모르겠다.》, 《업체들의 공동대응으로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려주겠다.》고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나아가서 《5.24조치》의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경제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수 있는 제도적보장을 촉구하는 1인시위, 성명발표 등으로 당국의 그릇된 정책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 해 봐 서 아 는 데 …》

남조선집권자가 입만 열면 무엇도, 무엇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했던것은 누구나 다 안다.

《해봐서 안다.》는 말의 진위여부를 떠나 북남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껏 꿀먹은 벙어리였다.

한번도 해본적이 없거니와 해놓은것이 있다면 북남관계의 총체적파국을 초래한것뿐이다.

지금으로부터 11년전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불신과 대결의 긴긴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환희로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함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6.15가 열어준 하늘길, 바다길, 땅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자주통일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쳤다. 북과 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북남사이에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사업도 광범히 진행되여 겨레의 통일열기를 고조시켰다.

금강산 1만 2천봉이 떠들썩하게 북남로동자들이 통일의 마치소리를 높이 울리고 북과 남의 농민들이 통일된 새땅에서 밭갈이할 꿈을 농악무에 담아 펼칠 때, 북녘의 통일사절로 부산과 대구에 간 《꽃응원단》의 《우리는—》 하는 웨침에 남녘의 겨레들이 《하나다!》라고 화답할 때 온 겨레의 가슴속에 고동친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존엄있고 륭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겠다는 민족적자존심이였고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세기적숙망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이였으며 민족공조로 높뛴 자주통일의 거세찬 숨결이였다.

진정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6.15는 민족의 화해이고 단합이였으며 나라의 평화이고 통일이였다.

그런데 리명박《정권》의 집권으로 우리 겨레는 실로 많은것을 잃었다. 북남사이에 흘러넘치던 따뜻한 웃음과 신뢰를 잃었고 대화와 협력을 잃었으며 평화를 잃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에는 불신이 극도에 이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열핵전쟁의 무거운 기운만이 감돌고있다.

통일6.15의 격정과 환희를 직접 체험한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만을 몰아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동족대결정책에 규탄과 저주를 퍼붓고있다.

북남관계를 실지 해본 남조선의 6.15공동선언, 10.4선언관계자들도 《리명박〈정부〉의 대결정책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것을 잃었다.》, 《남북관계의 첫 걸음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정신으로 되돌아가는것》이라며 보수당국에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집권여당이라는 《한나라당》내에서조차 현 《정권》에 《〈대북강경책〉을 수정》하고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있는 실정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입버릇처럼 그 무엇을 《해봐서 안다.》지만 남조선땅은 온통 《교육비대란, 의료비대란, 비정규직대란, 고물가대란, 전세대란》 등의 《대란》투성이이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현 집권자의 입에서 《나도 애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교육비가 너무 심각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발간한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읽어봐서 아는데 반값등록금 당장 가능하다.》라는 말은 《왜 안나올가, 참으로 궁금하다.》며 야유를 보내고있다.

북남관계는 꽉 막혀있고 남녘의 민심은 리명박《정권》에 등을 돌려댄지 오래다. 남조선인민들은 최근 련속 벌어지는 보수당국의 《공안탄압이 〈정권〉말기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의 기세에 멱살잡힌 독재〈정권〉의 발버둥질》이라고 하면서 《망해도 곱게 망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대매국세력들》에게 철추를 안기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래년 《대선》까지 1년남짓한 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집권자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할수 있다.

이제는 남조선집권자가 《실지로 북남관계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할수 있을가.

외세우선, 외세중시정책이 아니라 민족우선, 민족중시정책, 동족대결정책이 아니라 민족공조정책, 반6.15정책이 아니라 6.15리행정책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 통일의 길이라고.

본사기자 최광혁

대화의 막뒤에서 감행되는 대결소동

얼마전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내정된 마틴 뎀프시 미륙군참모총장이 남조선을 행각하였다.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의 행각기간 그는 남조선군의 합동참모본부의장 한민구와 전쟁모의판을 벌려놓고 핵무기와 탄도미싸일, 특수전부대 등에 의한 그 누구의 《도발》과 그에 따른 남조선군과 미군의 대응책을 토의하였다. 그런가하면 이자는 전쟁화약내를 풍기며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일대를 돌아쳤다.

한편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 공화국에서의 그 무슨 《급변사태》시 그에 대비한다는 《개념계획 5029》부속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최근 언론들을 통하여 폭로되였다.

긴장완화와 대화분위기로 나아가는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격화와 대결에로 몰아가는 위험한 움직임이 아닐수 없다.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여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다. 이런 속에서 지난 7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미국의 뉴욕에서는 조미사이의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건설적인 분위기속에서 관계개선과 조선반도정세안정, 6자회담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전쟁과 대결의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갈데 대한 조미사이의 고위급회담은 유관국들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이 대세로 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대화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회담하고있을 때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대화상대방인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꿍꿍이판을 벌려놓은것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모한 범죄책동이 아닐수 없다.

대화의 막뒤에서 감행되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반공화국전쟁소동은 그들이 대화와 평화가 아니라 오직 전쟁과 대결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속에서는 《제비 한마리가 왔다고 하여 봄이 온것은 아니다.》느니,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성급한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하는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들이 여기저기에서 튀여나오고있다. 그런가하면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세력은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을 대규모적으로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것이 대화의 기류를 차단하고 정세를 또다시 대결과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으리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 땅에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만을 추구하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반평화적인 전쟁범죄책동은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수 없다.

가소로운것은 내외호전세력들이 전쟁열에 들떠 그 무슨 《급변사태》를 아직도 망상하고있는것이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돌진하는 공화국에서 그 무슨 《급변사태》란 있을수 없다.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내외호전세력들이 공화국에서의 그 무슨 《급변사태》를 꿈꾸며 《개념계획 5029》 부속문건을 작성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해가 떨어지기를 바라는자들의 어리석은 개꿈에 불과하다.

공화국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여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공화국의 대화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전쟁과 대결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로부터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뿐이다.

김응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교직원분과위원회 대변인들 담화 발표

지금 남조선에서 대학들에 자금을 지원하여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교육비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짓약속을 늘어놓은 당국자를 규탄하고 대학등록금대폭인하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반값등록금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교직원분과위원회 대변인들이 7월 31일과 1일 각각 담화를 발표하여 현 《정권》의 반인민적 교육정책을 규탄하였다.

대변인들은 담화에서 현 《정권》의 반인민적교육정책으로 온 남조선땅에 항의시위와 초불집회, 100만국민서명운동 등으로 투쟁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괴뢰당국이 요란스레 광고했던 반값등록금공약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청년학생들의 배움의 길을 가로막으며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결과이라고 지적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와 교직원분과위원회는 공화국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 교육자들, 인민들과 함께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벌리고있는 정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고 대변인들은 강조하였다.

대변인들은 엄청난 교육비때문에 애젊은 청춘들과 학부형들이 불안에 떨고 울분을 못이겨 목숨까지 끊는 비극적현실은 남조선이야말로 민생, 민권의 불모지이고 미래가 없는 암담한 사회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실은 인민들이야 죽건말건 오로지 《정권》유지와 연장에만 피눈이 되여 날뛰는 역적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청년학생들의 배움의 꿈과 자식들의 밝은 앞날에 대한 학부형들의 소원도, 인민들의 참다운 권리도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대변인들은 지적하였다.

그들은 거짓공약과 민심기만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고있는 괴뢰패당에게 더이상 기대할것도 두고볼것도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고조시키고 줄기차게 이어나감으로써 희세의 반역집단인 괴뢰패당을 파멸시키고 민주, 민권과 참다운 삶을 하루빨리 쟁취하여야 할것이라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비렬한 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파쑈공안당국의 폭압소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8월 4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977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정보원과 검찰 등 남조선파쑈공안당국은 극히 모략적인 《간첩단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남조선 각계의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일대 탄압소동을 일으키고있다.

괴뢰공안당국은 그 무슨 《접선》이니, 《물적증거》니 하면서 야당들과 로동계, 학계, 경제계 등 각계의 많은 사람들을 마구 끌어다 조사하는 놀음을 벌리고 야수적으로 처형하려 하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괴뢰패당의 《간첩단사건》조작책동을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극악한 파쑈적폭거로,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보도는 파쑈공안당국이 떠드는 《간첩단사건》은 터무니없는 모략사기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괴뢰공안당국이 《간첩단사건》을 조작하고 대대적인 탄압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은 바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대내외정책의 총파산과 북남관계파탄으로 인한 광범한 대중의 반《정부》민심을 호트러뜨리고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며 진보세력들의 활동을 《용공》, 《친북》으로 몰아 말살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더우기 그것은 북남관계개선과 《대북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동족대결정책을 고수해보자는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야당들과 각계층은 괴뢰공안당국의 이번 《간첩단사건》조작에 대해 《치졸하고 비렬한 모략》, 《진보세력말살음모》, 《래년 총선과 대선용》이라고 단죄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이번 사건조작을 통하여 괴뢰보수패당의 반통일대결적정체가 더욱 만천하에 드러났다.

파쑈공안당국이 너절한 광대극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통치위기를 모면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오산은 없다.

보수패당의 단말마적발악은 내외여론의 더 큰 비난과 민심의 거세찬 항거만을 불러일으킬뿐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비렬한 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한나라당》패거리의 망언을 규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7월 27일 론평을 발표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 주민들에 대한 《한나라당》패거리의 망언을 규탄하였다.

론평은 《한나라당》의원 김무성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친북세력》으로 몰아대며 경찰병력투입을 운운하는 망언을 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난 시기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에 대해 비판하면 일본관광객이 줄어들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로골적으로 일본을 비호하는 등 별의별 망언을 늘어놓아 국민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던 이자가 이제는 색갈론망발까지 서슴지 않고있다고 론평은 단죄하였다.

론평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침략전쟁기지로 리용되게 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며 더우기 기지건설강행으로 생활터전을 빼앗긴 강점마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저항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제주도 주민들뿐아니라 남조선 각지의 환경운동가들, 종교인들, 시민사회단체성원들, 야당인사들이 공사강행에 맞서 줄기차게 싸워왔다고 하면서 이 정의로운 투쟁을 《친북》으로 몰아 탄압하려는것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론평은 밝혔다.

론평은 《한나라당》의원이 제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시

그대들의 교정은 어디에 있는가

김태룡

어제는 등록금이 없어
졸업을 눈앞에 둔 수재가
끝내는 교정에 눈물뿌리고 떠나더니
오늘은 그 교정으로
등록금없는 설음 한장의 유서로 남긴
한 녀대학생의 비극이 날아들었다

자식의 등록금한탄 차마 들을수 없어
목에 칼을 긋고 떠나간
눈 못 감은 아버지를 묻은 집도 있어라
용서하라고 죄스러워 더는 못살겠다고
피를 토하며 어머니가 쓰러진
그런 집은 또 헤여보아 얼마더냐

학문을 배우는것이 대학생이라 했건만
돈이 없어 모진 수모를 당하고
고된 로동판에 딩굴어야 하는것이
바로 당신들
남녘의 대학생들이다

반값등록금 그 화려한 《선거》공약으로
그대들을 기만한 보수패당
과연 그들이 약속하고
그대들이 바란것이
이런 고통이고 이런 죽음이였던가

어이 알랴
오늘은 또 그 누가
꿈과 희망을 싸안고 교정을 떠날지
래일엔 또 어느 부모가
한숨끝에 자식의 곁을 떠날지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지 말자
민심에 등을 돌려대고
배움의 권리를 빼앗은 그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것인지를
남녘의 청년대학생들이여
똑똑히 보여주자

눈물젖은 유서가 아니라
증오가 불꽃튀는 단죄서를 쓰라
무너져앉은 학우와 부모
아니 온 남녘에 분노의 초불 쥐여주라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그날까지

등록금이 없어 떠나야만 했던
대학의 교정은 뒤에 있어도
등록금없는 새 세상을 위해 싸울
투쟁의 교정은 앞에 있거니

오, 남녘의 청년대학생들이여
그 투쟁의 교정에 떨쳐나서라
돈없이 마음껏 배우는
새 사회의 대학생이 되기 위해
배움의 교정에 들어서기 위해

서푼짜리 파쑈모략극

최근 남조선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반공화국파쑈모략극이 조작되고 있어 사람들의 분격을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공안세력을 내몰아 지난 7월 여러 날에 걸쳐 로동계와 정계, 학계인사 10여명의 집과 사무실들에 대한 압수수색놀음을 벌려놓았으며 그 과정에 5명을 체포구속하였다.

남조선공안당국은 이들이 《북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과 지하당건설》을 하였다느니 뭐니 하는따위의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이들에게 형벌을 가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현재 남조선공안당국으로부터 《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통보받은 사람들은 무려 30여명에 이르고있다.

남조선공안당국은 《조사의 확대》를 운운하며 탄압의 마수를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야당에까지 뻗치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지난 시기 집권연장과 통치위기수습을 위해 《친북간첩사건》들을 줄줄이 조작하고 통일민주인사들과 진보세력들을 《간첩》으로 몰아 무리로 처형하던 군부독재시대를 그대로 방불케 하고있다.

남조선공안당국의 그 무슨 《일진회사건》이니 뭐니 하는 《간첩단사건》은 명백히 진보세력, 통일애국세력을 탄압말살함으로써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재집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계획적인 모략책동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의 통치위기는 집권말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고있다. 지난해의 《지방자치제선거》와 올해에 있은 보충《선거》에서의 참패로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보수집권세력은 지금 바람앞의 초불신세에 처해있다.

《저축은행비리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당국과 련관된 부정적인 사건들이 련이어 터져나와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량극화와 북남관계의 파국이 현 당국의 반역정책이 빚어낸 산물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터져나오고있다.

이러한 위기는 재집권을 노리는 현 보수세력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불안이 아닐수 없다.

하여 남조선당국이 고안해낸것이 이전 독재세력들이 써먹던 상투적수법그대로인 《간첩단사건》조작이다.

그런데 워낙 대결과 파쑈에 머리가 굳어질대로 굳어진자들이다보니 모략이 서툴고 수법도 치졸하다.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는 공안당국은 《일진회》이니 《왕재산》이니 하며 《간첩단》의 명칭을 이것저것으로 불러대고있으며 구속된 사건관련자들은 자기들이 무엇때문에 구속되였는지 리유도 모르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숱한 〈보안법〉사건을 보아왔지만 〈반국가단체〉라는 무시무시한 사건을 발표하며 정보원이 명칭도 헛갈리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야유하면서 《과연 조직사건의 실체가 있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거세여지고있다.》며 그 진상을 까밝힐것을 요구하고있다.

사실들은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이 이전 군부독재세력의 파쑈적본성을 그대로 체현하고있으며 재집권에 미친나머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덤비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래년 〈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붕괴시키려는 대결광란극》, 《공안당국이 과거시대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했던 방식을 되풀이하려 한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서푼짜리 모략사건조작으로 심각한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재집권의 꿈을 실현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보수《정권》을 갈아엎으려는 민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킬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등록금문제해결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초불집회

남조선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7월 29일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등록금문제해결을 위한 36차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새학기 등록금통지서가 또다시 대학생들을 압박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대학생들의 66%가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충당하고있으며 이로 인한 빚때문에 졸업후에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떠드는 대학구조조정이니, 지원이니 하는것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등록금문제해결의 본질을 망각한것이라고 규탄하면서 등록금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초불투쟁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해군사관학교 교관을 파쑈악법에 걸어 기소

2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군검찰당국이 해군사관학교 한 교관의 강의안을 문제시하면서 지난 6월 27일 그를 파쑈악법 《보안법》에 걸어 기소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파쑈당국은 그가 가지고있던 선행고전가들의 서적들과 인터네트를 통해 받은 《김일성주석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의 문건들을 《리적표현물》이라고 몰아대며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

또한 검찰은 그가 2009년에 작성한 강의안에서 조국광복회결성, 보천보전투와 해방직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실시된 토지개혁 등을 해설하였다 하여 북의 립장에 동조하였다는 감투를 씌우는 횡포를 부렸다.

파쑈당국은 9일 대전군사법원에서 그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리려 하고있다.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며 북을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파쑈악법에 걸어 탄압하는 이러한 망동은 당국의 반공화국대결광증이 극도에 달하고있음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집권말기증세 — 파쑈폭력

남조선에서 한진중공업사태가 발생한지 여러달이 지났다. 그들의 투쟁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성원도 최근 와서 더욱 거세여지고있다.

400여명의 시민들로 시작된 《희망뻐스》원정시위는 185대의 뻐스가 동원된 2차시위에 이어 1만 5 000여명이 떨쳐나선 3차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도 여기에 합세하였으며 얼마전에는 《한진중공업의 사태는 비정규직문제해결의 시험지》라고 하면서 이 해결을 위한 5개 야당의 당대표모임도 가지였다.

이와 반면에 청와대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한 일이란 회사측을 끼고돌면서 경찰을 내몰아 로조와 로동자들을 광란적으로 탄압한것뿐이였다.

알려진것처럼 한진중공업사태는 지난해말 회사가 정리해고명단을 발표하고 수백명의 로동자들을 내쫓은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때로부터 200여일간 로조지도부와 로동자들은 로동권사수를 위한 파업을 벌리고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보수집권세력의 눈길은 싸늘하였다.

지난달 29일에도 《국회》환경로동위원회가 로사량측을 불러 청문회를 벌리려 하였으나 《한나라당》의원들의 거부로 무산되였다고 한다.

《희망뻐스》에 대한 보수집권세력의 탄압은 더욱 광기를 띠였다.

경찰은 《희망뻐스》의 원정시위자들에게 분사기 등으로 최루액을 조준사격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들을 강제련행하고 집단구타하는 폭행을 감행하였다.

시위자들은 물론 기자 등 취재진에도 최루액을 분사하고 취재를 못하게 촬영기렌즈를 가로막고 구타하는 파쑈적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3차 《희망뻐스》 원정시위때에는 이를 가로막기 위해 90여개 중대 7 000여명을 동원하여 파업현장을 겹겹히 가로막고 이 일대의 도로를 차단하였다.

망둥이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당국의 횡포에 힘을 얻은 보수단체들도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희망뻐스》를 가로막고 시위자들에게 행패를 가하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정권〉이 그 수명을 다해갈 때 항상 보여왔던 모습이 이런 극단적인 폭력》이라고 하면서 《리명박〈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을 소탕하고있다. 소통〈정부〉가 아니라 소탕〈정부〉다.》고 비난하였겠는가.

그런데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비인도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망동은 덮어두고 《부산은 어느새 온갖 외부세력들이 집결하는 로사투쟁장으로 변모해버렸다.》고 떠들고있다.

지어 파업장에 진압무력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폭언도 내뱉고있다.

그로 하여 한진중공업의 파업은 금시 제2의 《쌍룡》사태로 변하고있다.

입만 벌리면 《서민을 위한 정치》, 《공정사회실현》으로 남조선인민들을 유혹하고 민심을 기만하는 보수집권세력의 《약속》이란 기만이고 빛바랜 거품이라는것을 한진중공업사태는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무모한 파쑈폭력으로 집권말기증세를 보이고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 시민단체를 비롯한 인민들은 이 투쟁에서 이기는것은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로동자들의 문제, 다음 세대아이들의 문제》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리명박〈정부〉를 퇴진시키는 운동은 이미 시작되였고 끝까지 싸워 이길것이다.》라고 자기들의 의지를 더욱 가다듬고있다.

악정의 폭압은 결코 정의의 투쟁을 이길수 없다.

본사기자 김철호

항의롱성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소속 성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1일 《국회》앞에서 항의롱성을 벌렸다.

그들은 특권층의 특대형부정부패행위인 부산저축은행사건으로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국회》가 하루빨리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진상규명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인명피해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7월 27일 새벽 남조선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산사태로 4채의 건물이 흙에 묻혔다.

당시 건물안에는 대학생 등 40여명이 있었는데 그중 7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다.

본사기자

이역에서도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3)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1돐을 경축하는 동포들의 모임에 초청한다는 련락을 받고 우리가 간 곳은 로씨야 모스크바주 우와노브까시교외의 어느 한 공원이였다.

무연하게 펼쳐진 잔디밭에 듬성듬성 서있는 아름드리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던져주고 앞에는 넓은 호수를 낀 그곳은 야외들놀이장소로는 그저 그만일것 같았다.

우리가 도착하니 이미 수십여명의 남녀로소동포들과 몇명의 로씨야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야유회준비가 한창이였다.

야외천막아래 차려놓은 탁자에서는 녀성들이 모여붙어 집에서 마련해온 김치며 고기볶음, 빵들을 꺼내놓고 양념감들을 손질하고있는데 그와 좀 떨어진 풀밭에서는 반바지차림에 웃동까지 벗어던진 김 뾰또르동포가 시뻘겋게 타오르는 장작불우에 걸어놓은 큰 무쇠가마에 희멀겋게 깎은 통알감자들을 무득히 담아놓고 그것을 삶느라고 비지땀을 흘리고있었다. 또 한쪽에서는 서 가이펠렉스동포를 비롯한 남정들이 숯불이 이글거리는 구이로에서 애기주먹만 한 양고기들을 꼬치에 꿰여 연방 구워내고있었다.

시원한 나무그늘아래에 큼직한 비닐보를 펼쳐놓고앉아 아직도 살아서 펄떡거리는 팔뚝같은 잉어를 손질하며 물고기회를 치는데서는 자기들을 당할 사람이 없다고 으시대는 김 로베르또와 리 게라아바이들의 모습도 볼만 하였다.

아이들도 덩달아 흥성거리는데 좀 큰아이들은 호수가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고기잡이에 열을 올리고있었고 꼬마들은 잔디밭에 머리를 맞대고앉아 윷놀이에 승벽을 부리고있었다.

휴식일을 맞는 평양의 모란봉이나 보통강반에 펼쳐지는 풍경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들며 우리도 저절로 흥이 났다.

이윽하여 긴 식탁우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갖가지 음식들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모두 둘러앉자 김 펠렉스위원장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는 오늘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1돐을 기념하는 우리 동포들의 큰 명절이라고 하면서 조국의 통일은 우리의 부모들이 간절히 바라왔고 또 그 후손들인 우리들이 절절히 바라는 소원이라고, 로씨야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모두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통일의 날이 꼭 온다는 확신을 안고 살고있다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자고 격동에 넘쳐 말하였다.

열렬한 박수갈채와 함께 잔들이 부딪쳐졌다.

김 뾰또르동포가 공을 들인 양고기를 넣고 삶은 감자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인기를 끄는데 그에 못지 않게 사람들의 저가락이 자주 가는것은 역시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풋절이김치였다.

이런 뜻깊은 모임을 조국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 하게 되여 더욱 기쁘다고 하면서 여러명의 동포들이 저마끔 음식을 권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들의 진정을 받아들이느라고 어지간히 땀을 빼지 않으면 안되였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데 누군가가 《우리 노래를 부릅시다.》 하더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하고 노래선창을 뗐다.

그러자 모두가 그 노래를 따라불렀고 한 노래가 끝나기 바쁘게 여기저기서 《봉선화》, 《반갑습니다》와 같은 우리 나라 노래들이 련이어 터져나왔다.

동포들의 노래자랑이 고조에 오르는 속에 나이지숙한 한 녀성동포가 일어나더니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그러자 자리에 앉아있던 동포들이 일제히 그 노래를 따라부르기 시작하여 노래는 인차 대합창으로 변하였다.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우리도 한없이 경건한 심정을 안고 혁명송가합창에 목소리를 합치였다.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역만리에서 사는 동포들이 절절한 목소리로 부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는 7천만 온 겨레의 심장의 웨침소리를 듣는것만 같아 벅차오르는 격정을 누를수 없었다.

어느덧 시간은 많이 흘러갔지만 조국에 대한 이야기며 민족의 넋을 지켜가는 자기들의 자랑을 펼쳐놓는 동포들의 모임은 인차 끝나지 않았다.

다음일정이 있어 동포들에게 량해를 구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리 게라 로씨야고통련서기장이 하는 말이 가슴에 젖어들었다.

《우리에게 돈이 많고 재부가 많아서 이렇게 마음껏 웃고 떠드는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내 조국이 있다는 자랑과 긍지, 든든한 배심이 우리를 항상 웃으며 살게 하는것이지요.》

※ ※

우리는 로씨야에 살고있는 동포들에 대한 길지 않은 나날의 취재를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의 작은 시창아래로는 끝간데 없이 펼쳐진 무연한 대지가 흘러갔지만 그보다 가깝게 우리의 눈앞에 어려오는것은 이번 걸음에 만나본 많은 동포들의 모습이였다.

온 세상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랑을 안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도 가슴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동포들.

조국땅이 가까와올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더욱 깊어갔다.

박영철

(끝)

10년과 700여일

수사도 모는 희천속도

공화국에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으로 내세우고있는 희천발전소가 드디여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10년이 걸려야 한다던 발전소건설을 불과 2년만에 90%계선에 이르게 한것은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기적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에서는 희천에서 창조된 이 기적같은 건설속도를 두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라고 명명하였다. 외신들은 《무서운 속도》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10년과 700여일.

말처럼 쉽지 않았다. 북방의 강추위와 불리한 지리적조건, 특히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 헤아릴수 없는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였다. 하지만 희천의 건설자들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심심산중에서 새로운 수력발전건설속도를 창조하였다.

놀라운 그 기적의 비결은 령도자와 군민의 혼연일체에 있다. 공화국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을 희천의 기적을 통해 세계는 다시한번 깨달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희천발전소를 완공할것을 선포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마음속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해내리라는 철석같은 믿음이 자리잡고있었다.

그이께서는 2년남짓한 기간에 무려 7차례나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30℃의 강추위가 계속되는 한겨울에도 오시고 불볕이 내리쪼이는 여름철에도 오시여 석수떨어지는 지하의 조압수조공사장에까지 들어가보시였고 위훈을 떨쳐가는 건설자들에게 치하와 격려의 말씀도 하시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크나큰 그 믿음과 사랑은 건설자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었고 그들을 새로운 기적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매우 거창하고 방대한 희천발전소건설은 튼튼한 경제토대와 막대한 자금과 자재, 높은 과학기술적담보를 요구하는 대건설이다.

하지만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고난을 헤치며 다지고다진 자립경제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사를 최대의 속도로 다그쳐나갔다.

산을 통채로 떠옮긴것과 같은 룡림언제와 희천언제쌓기, 천연암반을 관통시킨 물길굴뚫기, 거대하고 육중한 발전기생산과 조립 등을 짧은 기간에 해제낀것은 주체적인 경제토대, 강력한 과학기술적잠재력이 없이는 생각할수 없다. 희천발전소건설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지혜와 힘으로 헤치며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공법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였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최고발명가상을 받은 조립식부재에 의한 콩크리트언제시공방법과 물길굴을 최대의 속도로 뚫을수 있는 새로운 발파법, 가스제거방법, 발전기의 놀라운 조립속도 등은 발전소건설을 훨씬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애국의 신념과 불굴의 정신력 더하기 과학기술, 여기에 희천발전소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온 중요한 비결이 있다.

희천의 기적은 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잠재력, 군대와 인민의 애국충정과 비상한 창조력을 보여주는것이다.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창조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냅다 내달려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국가의 문패를 달겠다는것이 공화국의 의지이고 결심이다.

리복순

룡림언제건설

2009년 4월 20일 착공식 진행. 50일만에 가물막이공사를 끝내고 타입 시작. 2년이 걸려도 어림없다던 가배수로를 석달만에 형성하고 련이어 두달만에 언제기초공사 완공. 3년동안에 해야 할 부재생산과제를 1년동안에 끝내고 하루에 최고 1만여㎥의 언제콩크리트치기 진행. 공사기간 로라다짐에 의한 콩크리트치기방법을 받아들여 지난해말에는 언제를 80m높이로 쌓아올리고 2011년 4월말 언제콩크리트치기 완공.

희천언제건설

2009년 3월 28일 착공. 50° 경사의 산중턱에 대한 암반굴착을 10일만에 끝내고 2009년 6월 5일 콩크리트치기 시작.

2009년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콩크리트치기를 우에서 아래로, 좌우로 진행하여 그해 10월 언제쌓기 30%계선 돌파. 콩크리트치기에 새로운 공법들을 도입하고 혼합물운반에 벨트콘베아를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4배이상으로 증가.

2010년 한해동안에 100여만㎥의 언제콩크리트치기 진행. 그리하여 언제콩크리트치기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지난 4월 9일 가배수로를 밀폐하고 물잡이 시작.

립체전

물길굴공사, 발전기실건설, 송전선건설을 병행하여 진행.

수십km의 물길굴공사는 희천발전소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대상의 하나였지만 착공한지 불과 8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작업갱뚫기를 끝내고 지난해말에는 물길굴전구간을 관통. 지난 5월말현재 갱피복공사의 90%계선 돌파. 3년이상 걸린다던 도양령도로공사를 단 12일만에 결속.

2010년 6월 희천1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를, 지난 3월 압력철관로조립공사를 결속. 대용량변압기들과 발전설비들도 설치되여 희천1호발전소 발전기실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 2010년 6월 중요구간의 송전선철탑기초공사를, 지난해말 희천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사이 송전선공사를 완공.

본사기자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

최근년간 공화국에서 수많은 유원지와 공원, 극장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나라의 곳곳에 있는 명산들과 명승지, 명소들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유원지를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고 몸소 현지들을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칠보산유원지, 구월산유원지, 장수산유원지를 비롯한 수많은 유원지들이 건설, 개건되였다. 최근년간에는 묘향산유원지, 정방산유원지 등이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동해기슭의 풍치수려한 곳에 자리잡고있는 마전유원지도 새롭게 변모되였다.

묘향산유원지에는 드넓은 등산도로들과 정각 등이 새로 건설되고 향산호텔이 새 세기의 요구와 시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였으며 마전유원지에는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인 마전호텔이 새로 건설되고 해수욕장 등이 더 잘 꾸려졌다.

예로부터 평양의 금강산으로 일러온 룡악산 역시 인민들이 즐겨찾는 유원지로, 문화휴식터로 희한하게 꾸려졌다. 대봉, 솔봉을 비롯한 20여개의 절묘한 봉우리들과 수십개의 골짜기들로 이루어지고 수백년 자란 느티나무, 참중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이 자라 봄에는 꽃향기 그윽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만산을 붉게 물들여 계절마다 절경인 룡악산에 수십km에 달하는 참관도로가 형성되고 여러개의 정각과 못, 놀이장과 야외식사터들이 훌륭하게 꾸려져 그 면모가 일신되였다.

황해금강으로 불리우는 장수산에도 수십km에 달하는 참관도로와 탐승길이 새로 닦아지고 다리 등이 건설되였다.

최근에는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우는 신평금강일대가 명승지로 새로 꾸려졌다.

문화휴식터로 새롭게 변모된 개선청년공원에서도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리고있다. 3중회전반과 급강하탑, 관성비행단차와 전자오락실 등 최신식유희오락시설들과 지짐집, 빵집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지고 불장식 황홀한 개선청년공원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즐기고있다.

강계시에는 풍치수려한 장자강반에 강계청년공원유희장이 새로 일떠섰다.

중앙동물원도 새 모습을 펼치였다. 세계 각지에서 서식하는 많은 희귀한 동물들을 자연적인 환경속에서 볼수 있도록 새롭게 훌륭히 꾸려졌으며 현대적인 수의병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중앙동물원은 세계적인 동물원으로서의 체모를 더 잘 갖추게 되였다.

많은 극장, 영화관들이 훌륭히 건설되거나 개건되였다.

평양시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국립연극극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최신설비들과 훌륭한 비품들로 가득찬 무대와 관람석, 편의봉사 및 위생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극장에서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며 예술창조활동을 벌리고있으며 인민들은 아무런 불편없이 공연을 관람하고있다. 사리원시를 비롯한 여러곳에도 현대적인 극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평양의 모란봉극장, 동평양대극장, 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과 대동문영화관이 선군시대의 문화전당으로 훌륭히 개건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히 꾸려진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는 공화국정부의 우월한 인민적시책을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박금일

개선청년공원에서

수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날 저녁이였다. 신호등을 번쩍이며 달려온 구급차가 내가 살고있는 아빠트현관앞에 멎어섰다. 웬일일가? 살펴보니 앞집에 살고있는 리옥희녀성이 평양산원에서 온 구급차에 오르는것이였다. 산모의 생명이 매우 위급한것 같았다. 의사는 무선전화로 환자상태를 평양산원에 급히 알리고있었다. 차는 곧 질주해갔다.

그로부터 한주일후였다.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그 녀성의 일이 어떻게 되였을가 생각하던중 나는 평양산원을 찾았다. 간호원의 안내로 TV앞에 마주앉아 리옥희녀성에게 건강이 어떤가고 물었더니 그는 조산아를 낳았지만 경막외마취에 의한 무통해산을 하여 건강에 아무런 지장도 없다며 밝게 웃었다.

경막외마취에 의한 정상산도무통해산방법은 최근 평양산원을 비롯한 각 도 산원들에 널리 도입되고있다. 이 방법은 해산할 때 산모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할뿐아니라 산통으로 인한 정신육체적손상을 막고 생체균형이 정상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며 해산을 쉽게, 빨리, 안전하게 함으로써 태아의 해산성손상을 막는 선진적인 의료봉사방법이다.

하지만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막대한 의료비사정때문에 부유한 계층의 녀성들이나 받을수 있다고 한다.

세상을 둘러보면 초보적인 의료상방조를 받지 못하여 해산과정에 목숨을 잃는 불쌍한 녀성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오죽했으면 얼마전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이 적지 않은 나라 녀성들속에서 《모성사망률이 의연히 높은데 대다수의 임신부들이 산후출혈로 사망하고있다. 해산은 건강한 신체의 반영이다. 그런데 녀성들이 해산과정에 죽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다. 높은 모성사망률은 취약하고 불결한 보건제도를 반영하고있다.》고 개탄하였겠는가.

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첫자리에 놓는 우리 나라에서만은 해산하는 녀성들 누구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순조롭게 해산하고있으니 이처럼 행복한 녀성들이 또 어디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간호원이 갓난애기는 지금 보육기안에서 잘 자라고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의사와 간호원들이 보육기안의 갓난애기에게 각종 비타민과 보약제를 섞은 젖을 영양전대로 먹여주고 귀한 약들을 쓰면서 다 자란 다음에도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료를 겸하고있다는것이였다. 이제 두달정도 보육기안에서 자라게 되면 엄마품에 안길수 있다고 했다.

거리로 나선 나의 마음은 류별나게 후더웠다. 그로부터 두달후 다시 평양산원을 찾아가니 엄마품에 안겨 웃는 귀여운 애기의 모습이 TV화면에 나타났다. 정말 몰라보게 컸었다.

리옥희녀성은 애기가 처음 보육기안에 들어갈 때 몸무게가 2kg도 못되였는데 이제는 3kg이 훨씬 넘는다고, 애기가 커감에 따라 간호원들이 보육기에서 젖빠는 련습도 시키고 대기온도에 맞는 온도를 보장해주어 보육기에서 나온 지금은 정상아가 되였다며 기뻐하였다. …

며칠전 나는 리옥희녀성이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모녀를 축하해주러 갔다. 꽃포단에 싸인 어린것은 의사들과 간호원들, 부모들의 웃음속에 떠받들려있었다.

리옥희녀성은 입원기간 우리 녀성들에게 돌려주는 사회주의보건시책의 고마움을 페부로 절감하였다고 목메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의 시어머니도 사람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제도가 아니라면 달수도 못 채운 애기가 어떻게 살아날수 있었겠는가고 하면서 웃고름으로 눈굽을 훔쳤다.

이때 담당의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조산아는 보기드문 일이지만 어버이장군님께서 세워주신 현대적인 평양산원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김혜숙

최첨단을 돌파한 공화국의 CNC기술

CNC는 콤퓨터수자조종이라는 영어단어결합의 략어이다. 이 말이 세상에 나온것은 1970년대 후반기이다. 콤퓨터프로그람에 따라 조종되는 CNC기계의 출현으로 하여 생산능률은 수십배로 높아졌다. 기계제작공업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데 공화국에서 발전된 몇개 나라들의 독점물로 되여있는 CNC기술을 자체로 개발하는데 성공한것이다.

주체84(1995)년 4월 29일 공화국의 기술자들은 처음으로 CNC기계를 만들어 내놓았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련하기계》개발집단에서 만들어낸 CNC줄방전가공반을 보아주시고 온 나라의 CNC화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 주체87(1998)년 1월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로 CNC화의 첫 자욱을 내디디신 때로부터 얼마후인 8월 31일 공화국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발사되였다. 세계는 깜짝 놀랐다. 그도 그럴것이 《광명성1》호와 다계단운반로케트에 들어가는 부분품들은 고성능급의 다축CNC기계가 없이는 제작이 불가능하였기때문이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속에 공화국에서는 5축가공중심반과 고성능8축CNC공작기계를 만들어내고 지난해에는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100% 자체로 설계제작함으로써 CNC기술분야에서 당당히 세계패권을 틀어쥐였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공화국이 미국의 수십년간의 정치, 경제적제재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력으로 세계최첨단급의 《어미기계》를 만들어낸것을 보면 기적을 창조하기에 충분하다고 평하였다.

그렇다. 공화국은 기적을 창조하였다.

기계공업분야에서 《마누팍뚜라》에 종지부를 찍고 무인화에로의 기적을 일으킨것이다. 10여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은 CNC기계로 장비한 옹근 하나의 공장을 세우고 콤퓨터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한데 기초하여 무인화를 실현해가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세계기계공업력사상 류례없는것이다.

CNC는 기계공업의 범위를 벗어나 경제의 모든 분야에 변을 안아왔다.

력사상 처음으로 온 나라의 CNC화라는 드높은 목표를 제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령도에 의해 공화국 각지에서는 전례없는 최첨단돌파열풍이 세차게 일고있으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부문에서 련이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 핵융합에서의 성공 등 최근년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변들은 CNC라는 말과 하나로 이어져있다.

단순히 기계기술용어의 범위를 벗어나 최첨단돌파전의 상징어로 되여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CNC.

온 나라의 CNC화는 이 땅우에 이 세상 모든것의 패권을 쥔 주체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다.

본사기자